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5월 13일(금) 총 11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문화콘텐츠과	담 당 자	• 콘텐츠정책팀장 송은주 ☎440-3991 • 담당자 정정도 ☎440-399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0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개막

-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애관극장서 개최 -
- 개막작 한국 단편 <빠마(Perm)> 비롯, 전 세계 31개국 총 63편 상영 -
- 기간 중 '온라인 상영관' 으로 총 15편 공개 -

인천광역시와 (사)인천영상위원회는 오는 5월 20일(금)부터 24일(화)까지 5일간 인천 중구 소재 인천아트플랫폼과 애관극장에서 제10회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문화를 개방한 이래 이주와 이민의 중심지였다. 1902년 한국 최초의 이민선이 인천항에서 하와이로 떠난 후,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항구와 공항을 통해 떠나고 들어오는 도시다.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이러한 이주의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가 깃든 인천에서 영화를 통해 차별과 편견 등으로 소외받는 이들의 다양성과 관용의 가치를 나누고자 기획된 영화제다.

‘다름에 대한 관용’을 주제로 지난 10년 간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관련 문제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며 화합과 공존, 존

중의 진정한 가치를 전파했다는 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올해는 이런 시대정신을 담은 31개국 63편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이번 영화제 기간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한다.

5월 20일(금) 저녁 7시 30분 인천아트플랫폼 ‘환대의 광장’에서 배우 조민수, 아나운서 김환의 사회로 시작될 개막식에서는 선우정아의 축하공연과 함께 개막작 〈빠마(Perm)〉가 상영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한국으로 귀화한 섹 알 마문 감독의 〈빠마(Perm)〉는 농촌 총각과 결혼한 방글라데시 여성 니샤의 애환을 담은 이야기로 이주민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와 포용의 중요성을 재치 있게 다뤘다는 평가다.

영화제 기간 중 디아스포라 장편(총 16편 상영작), 디아스포라 단편(20편), 디아스포라 인 포커스(19편), 디아스포라의 눈(2편), 시네마 피크닉(6편) 등 5개 섹션\*, 63편이 공개된다.

\*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영화제의 열기를 더해줄 부대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인천아트플랫폼 중앙에 위치한 ‘환대의 광장’에서는 뮤지컬과 재즈를 비롯해 실력과 뮤지션이 다수 출연하는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며, 디아스포라영화제 자문위원이기도 한 서경식 교수의 에세이를 바탕으로 재일조선인 3세의 경계에 선 자화상을 그려낸 연극 ‘디아스포라 기행’도 상연된다.

또한 △역대 디아스포라영화제 뉴스를 통해 소개된 디아스포라 관련 추천도서를 비치한 이색 도서관 디아라이브러리 △복잡하게 얽힌 미로를 통해 디아스포라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종이미로 디아스포라 모험 △친환경을 테마로 진행되는 플리마켓 △즉석사진인 화 디아네컷 △환경 교육 프로그램 디아에코스쿨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다.

한편, 본 행사기간에 앞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퍼플레이(purplay)를 통해 13일(금) 오전 10시부터 19일(목) 자정까지 열리는 ‘디아스포라영화제 단편영화 앙코르 특별전’에서는 1회부터 9회까지 디아스포라영화제에서 상영됐던 국내 단편 작품들 중 프로그래머가 추천하는 18편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제5회 디아스포라영화제 개막작 <야간근무(Night Working)>(감독: 김정은), 제7회 개·폐막작에 선정된 <은서(Eunseo)>(감독: 박준호)와 <노웨어 맨(Nowhere Man)>(감독: 김정근), 제9회 관객제작지원금 수상작 <고마운 사람(On White Wind Wall)>(감독: 이경호, 허지은)과 <여인과 사자(Woman Who Killed a Lion)>(감독: 박유진) 등 영화제 당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동시에 받은 다수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어 영화제가 개막하는 20일(금) 오전 10시부터 24일(화) 자정까지 진행될 ‘제10회 디아스포라영화제 온라인 상영관’에는 올해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빠마(Perm)>(감독: 섹 알 마문)를 비롯해 <겨울 애도(Winter Mourning)>(감독: 윤다희), <머드피쉬(Mudfish)>(감독: 이다현)등 ‘디아스포라 인 포커스’ 섹션 단편 7편과 <객관적 연애담(Homecoming Love)>(감독: 전진웅), <망향(Nostalgia)>(감독: 구기현, 이민호), <버킷(A Guitar in the Bucket)>(감독: 김보영) 등 ‘디아스포라

단편’ 섹션의 8편까지 총 15편의 작품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공연, 시민참여 아카데미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했다” 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참여자 모두가 하나 되는 영상문화 축제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상영작 및 예매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diaff.org](http://www.diaf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온라인 사전예약은 오는 19일 오후 1시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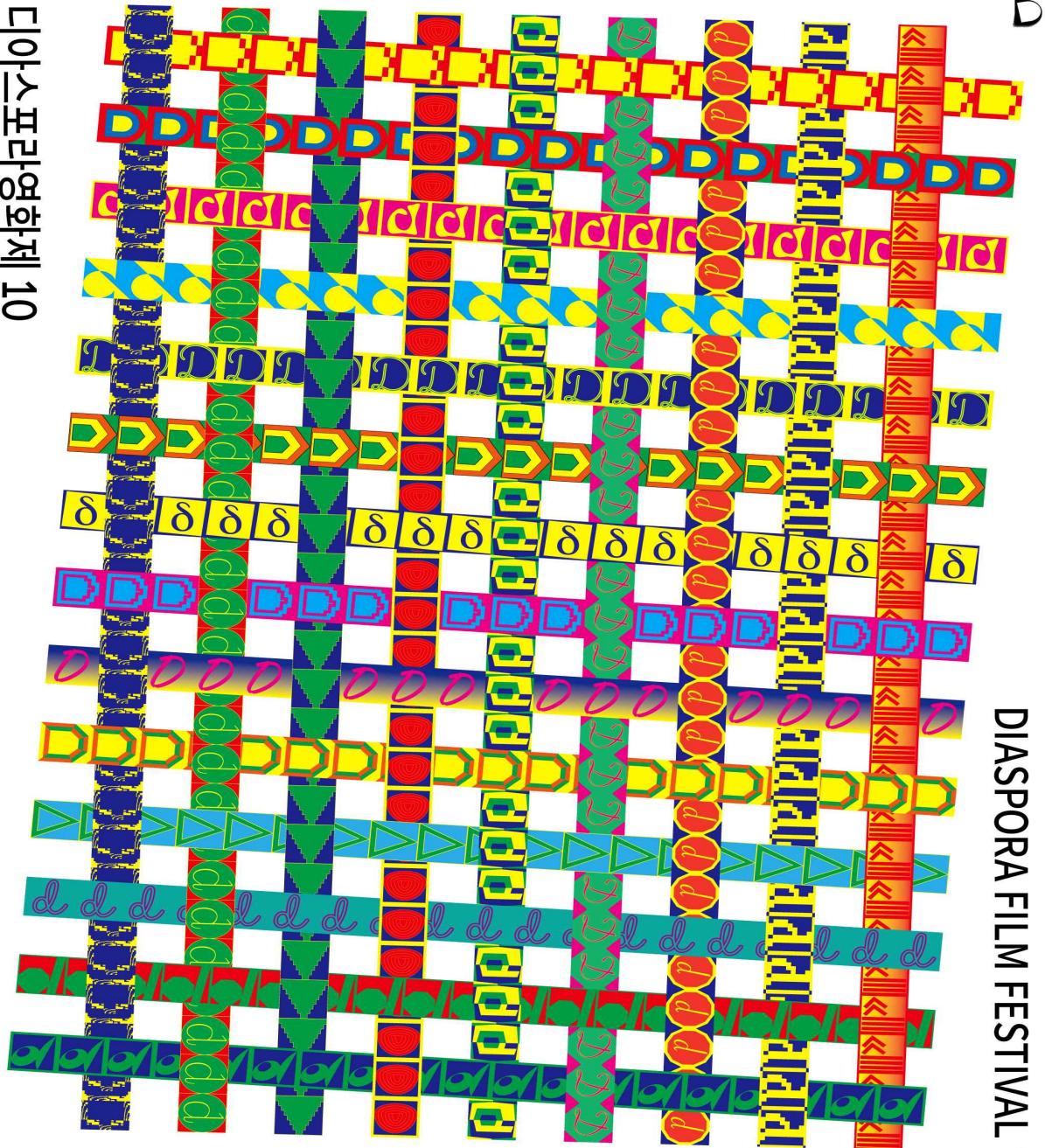
<사진> 영화제 포스터

<참고> 상영작 목록 등

사진

# 디아스포라 공식 포스터

디아스포라영화제 10



DIASPORA FILM FESTIVAL 10

2022.5.20. 인천아트플랫폼, 애관극장  
— 5.24. INCHEON ART PLATFORM, AE KWAN THEATER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천문화재단  
발행처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5월 10일 발행  
본행처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5월 10일 발행

## 참고 1

## 5개 섹션별 구성

① **디아스포라 장편(DIASPORA FEATURES)**’ 섹션에서는 <나의 집은 어디인가(Flee 감독: 요나스 포헤르 라스무센 / 덴마크, 프랑스)>와 <스파이의 아내(Wife of a Spy 감독: 구로사와 기로시 / 일본)>가 영화제 특별도서 『보통의 우리』 작가들과 함께 연계 토크가 진행된다. 디아스포라 문제를 예리한 시선으로 바라본 16개의 장편 작품이 관객들과 만난다.

② **‘디아스포라 단편(DIASPORA SHORTS)’** 섹션 또한 어느 때보다 화려하다. 이번 영화제 역시 <암란의 버스 3(Amran’s Bus 3 감독: 강영훈, 유명희, 박이랑 / 한국)>, <나홀 밤(Four Nights 감독: 디팍 라우니야르 / 영국, 네팔, 멕시코)>, <모리아의 유령들(Ghosts of Moria 감독: 미카엘 그라우에르센, 플로리안 엘랍디 / 덴마크, 영국)> 등 짧은 상영 시간 내 포용력 있게 디아스포라를 담아낸 20편의 단편 작품이 상영된다.

한국 이민사 120주년 기념 특별 기획’을 주제로 진행되는 ③ **‘디아스포라 인 포커스(DIASPORA IN FOCUS)’**는 총 19편의 장·단편이 상영된다. <당신 얼굴 앞에서(In Front of Your Face 감독: 홍상수 / 한국)>,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The Man Who Paints Water Drops 감독: 김오안, 브리지트 부이오 / 한국, 프랑스)>, <바다 저편에(Along the Sea 감독: 후지모토 아키오 / 일본, 베트남)> 등 이제는 많은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된 ‘이민’과 관련한 영화들을 상영한다. 이를 통해 각자의 이민의 경험을 들여다보고 ‘이민’의 명과 암, 기쁨과 슬픔 등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객원 프로그래머가 선정한 영화를 디아스포라의 시간으로 다채롭게 해석하는 디아스포라영화제의 인기 섹션 ④ **‘디아스포라의 눈’**에서는 범죄도시 등 2개의 작품이 관객들을 찾아가며, ⑤ **‘시네마 피크닉(CINEMA PICNIC)’** 섹션에서는 10회를 맞아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자하는 노력으로 “안녕 낯선 사람?”이라는 특별기획 아래 총 여섯 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그대 눈동자에 건배”라는 대사로 유명한 <카사블랑카>에서부터 <사운드 오브 뮤직>,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등 대중과 시네필을 매혹시킨 ‘낯선 사람들’을 담은 걸작이 디아스포라영화제를 화려하게 수놓을 전망이다.



## 참고 2

## 상영작 목록

### ■ 2022.5.20.(금) 개막

구분	작품제목	제작국가	감독
개막작	빠마(Perm)	한국	섹 알 마문

### ■ 디아스포라 장편 DIASPORA FEATURES (총 16개 상영작)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2022년 영화계는 보릿고개 같다. 극장으로 향하던 에너지가 OTT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방향을 틀면서 장편영화 제작 현장은 오랜 기간 가물었다. 그러나 가뭄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단비 같은 영화들이 있었다. 특히 디아스포라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다큐멘터리의 활약은 올해 역시 놀랍다. 최근 많은 영화들에서 ‘디아스포라’ 모습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다. 디아스포라가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작품에서도 디아스포라적 요소를 섬세하게 영화적 장르로 심어두었다. 이제 디아스포라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면면으로 재현된다.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이는’ 디아스포라의 얼굴들을 만나보시길.

No	작품제목	제작국가	감독
1	2차 송환 The 2nd Repatriation	한국	김동원
2	1989 베를린, 서울 NOW 1989 BERLIN, SEOUL NOW	한국	최우영
3	나의 집은 어디인가 Flee	덴마크, 프랑스	요나스 포헤르 라스무센
4	너에게 가는 길 Coming to You	한국	변규리
5	네 개의 여행 Four Journeys	네덜란드, 중국	루이스 핫핫
6	더 한복판으로 The Hanbok on the Court	한국	오소영
7	드라이브 마이 카 Drive My Car	일본	하마구치 류스케
8	섬이없는지도 Map without Island	한국	김성은
9	수프와 이데올로기 Soup and Ideology	한국, 일본	양영희
10	스파이의 아내 Wife of a Spy	일본	구로사와 기요시
11	야나가와 Yanagawa	중국	장룽
12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In Our Prime	한국	박동훈
13	차별 Discrimination	한국	김지운, 김도희
14	취한 새 Drunken Birds	캐나다	이반 그로보비치
15	쿠오바디스, 아이다 Quo Vadis, Aid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터키	야스밀라 즈바니치
16	퍼스트 카우 First Cow	미국	켈리 라이카트

## ■ 디아스포라 단편 DIASPORA SHORTS (총 20개 상영작)

제10회 디아스포라영화제 디아스포라 단편 섹션은 그 어느때보다 화려하다. 그만큼 디아스포라 이슈가 단편 영화의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다. 단편영화의 경우 제작 기간이 짧은 만큼 실시간 디아스포라 이슈를 흡수하는 포용력 또한 뛰어나다. 그래서 더욱 역동적이다. 그 역동의 에너지는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현재 디아스포라 문제들을 감각 중인 예리한 시선의 단편영화들을 통해 그 역동성을 경험하시길!

No	작품제목	제작국가	감독
1	F1-100 F1-100	미국, 말레이시아	에머리 차오 존슨
2	M의 유래 Telltale	한국	장원석
3	감춰진 흔적 A Hidden Trail	대만	차이쉬안강
4	객관적 연애담 Homecoming Love	한국	전진웅
5	관습 Customs	노르웨이	아르미타 케야니
6	그라이아이: 주둔하는 신 Graeae: A Stationed Idea	한국	정여름
7	나홀 밤 Four Nights	영국, 네팔, 멕시코	디팍 라우니야르
8	망향 Nostalgia	한국	구기현, 이민호
9	모리아의 유령들 Ghosts of Moria	덴마크, 영국	미카엘 그라우에르센, 플로리안 엘랍디
10	밤 Night	독일, 카타르, 팔레스타인, 요르단	아흐마드 살레
11	버킷 A Guitar in the Bucket	한국	김보영
12	부서진 집 A Broken House	미국	지미 골드블럼
13	열대소년 A Tropical Boy	한국	이지형
14	암란의 버스 3 Amran's Bus 3	한국	강영훈, 유명희, 박이랑
15	외로운 밤 Lonely Blue Night	미국	존슨 첵
16	은주 Eunnju	한국	김미애
17	채를 찾아서 Finding CHAE	한국	박가영
18	평양랭면 Pyeongyang Neangmyeon	한국	윤주훈
19	플레이 쉹겐 Play Schengen	노르웨이	군힐드 앵에르
20	화광: 디아스포라의 묘 Harvesting the Light: The Graves of Diaspora	한국	김소영, 이애림



## ■ 디아스포라 인 포커스 DIASPORA IN FOCUS (총 19개 상영작)

다른 나라에서: 한국 이민사 120주년 기념 특별 기획

In a Foreign Country: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Emigration

1902년 12월 22일.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을 떠났다. 121명의 한국인이 타고 있었다. 두렵고 불안했으리라. 하지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과 각오도 품었을 것이다. 각자의 이유로 인천을 등지고 태평양으로 향한 대한제국의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낯선 섬 하와이였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이었다. 제10회 디아스포라영화제 <디아스포라 인 포커스>로 디아스포라의 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한국 이민사 120주년 기념 특별 기획 <다른 나라에서>를 마련했다.

디아스포라의 이유는 명확하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이동한다. 먹고살기 위해,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해 우리는 산과 바다를 건넌다. 이민은 이미 많은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 현상이다. 많은 이들이 어릴 적 ‘미국 고모’와 ‘중동 삼촌’을 기억할 것이다. 이민을 떠난 친인척들이 보내주던 선물에서는 신기하고 낯선, 성공의 이미지가 묻어났다. 그러나 모두에게 해피 엔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민은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은 종종 낙오된다. 도망치듯 돌아온 고향은 예전의 그곳이 아니다. 낯선 고향의 삶 또한 만만치 않다. 디아스포라는 또 다른 디아스포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젠 더 나은 미래, 또는 성공을 꿈꾸며 한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민족’이라는 단어는 해체되고 있다.

2022년 <디아스포라 인 포커스>에서는 우리 각자의 이민 경험을 들여다본다. ‘다른 나라에서’의 명과 암, ‘다른 나라에서’의 기쁨과 슬픔, ‘다른 나라에서’ 돌아와 ‘더 다른 나라 같은 여기’의 삶은 어떨까?

No	작품제목	제작국가	감독
1	당신얼굴 앞에서 In Front of Your Face	한국	홍상수
2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The Man Who Paints Water Drops	프랑스, 한국	김오안,브리지트 부이오
3	바다 저편에 Along the Sea	일본, 베트남	후지모토 아키오
4	사랑, 돈, 그리고 죽음 Love, Deutschmarks and Death	독일	젼 카야
5	꽃의 집 The House of Flowers	일본	하야시 리 류타
6	짧은 만남, 긴 이별 Welcome Back, Farewell	브라질	마르쿠스 요시
7	조선 CHOSEN	미국, 한국	전후석
8	K-사람: 돼지머리 이야기 K-SARAM: Tale of Pig Head	독일, 러시아, 한국	알리사 버거
9	겨울 애도 Winter Mourning	한국, 미국	윤다희

10	과일 깎는 소리 Soft Sounds of Peeling Fruit	미국	소영 셸리 요
11	길상(吉祥) One of My Fortune	한국	조령미
12	머드피쉬 Mudfish	한국	이다현
13	밤비락 Bambirak	미국, 독일	자마린 와닷
14	빠마 Perm	한국	섹 알 마문
15	어디에도 없는 나의 집 I Don't Feel at Home Anywhere Anymore	벨기에, 중국	비브 리
16	익혀진 익숙함 Unfamiliar Familiar	한국, 스위스	신해섭
17	좋은 친구들 That's what friends are for	한국	여균동
18	집에 Homegoing	미국, 한국	박연
19	팀 메릴랜드 Team Meryland	미국	가브리엘 고라노

## ■ 디아스포라의 눈 DIASPORA'S EYE (총 2개 상영작)

객원 프로그래머가 선정한 영화를 디아스포라의 시간으로 다채롭게 해석하는 디아스포라영화제의 인기 섹션 〈디아스포라의 눈〉. 2022년 역시 화제의 객원 프로그래머가 디아스포라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 인천의 관객을 찾는다. 올해의 주인공은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과학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권일용 범죄학 박사, 그리고 현재 한국 소설의 젊은 거장 박상영 작가다.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박사는 엄청난 흥행 성공으로 속편까지 제작된 범죄 액션영화 〈범죄도시〉를 날카롭게 재해석한다. 박상영 작가는 인생 영화를 뽑았다. 마이클 커닝햄의 풀리처 수상작 『세월』을 원작으로 한 〈디 아워스〉를 소설가의 시각으로 해석한다. 10주년을 맞이하는 디아스포라영화제를 더욱 풍성하게 할 〈디아스포라의 눈〉을 놓치지 마시길!

No	작품제목	제작국가	감독
1	디 아워스 The Hours	미국	스티븐 달드리
2	범죄도시 THE OUTLAWS	한국	강윤성

## ■ 시네마 피크닉 CINEMA PICNIC (총 6개 상영작)

### “안녕, 낯선 사람?”

낯섬은 두려움이다. 공포로 변질된 낯섬은 종종 차별과 혐오로 이어진다. 그러나 낯섬은 또한 새로움이다. 새롭기 때문에 낯설고 그래서 더욱 매혹적이다. 낯선 공간을 느끼며 우리는 스스로의 틀을 부순다. 낯선 존재를 만나며 우리는 인식의 확장을 경험한다. 낯선 사람을 만나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꽃피운다. 그렇기에 낯섬은 새로운 세계, 또는 확장된 세계의 가능성 그 자체이다.

봄과 여름을 가로지르는 5월. 모두가 기꺼이 함께 즐기는 2022년의 ‘영화 소풍’ 역시 각별하고 특별하다. 10회를 맞이하여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디아스포라영화제의 노력이 특별 기획 “안녕 낯선 사람?”으로 이어졌다. 지난 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해마지 않았던 ‘낯선 사람들’의 영화가 인천을 찾는다. 과하게 의역되어 더 사랑받는 명대사 “그대 눈동자에 건배”로 유명한 〈카사블랑카〉에서부터, 〈사운드 오브 뮤직〉, 〈바그다드 카페 리마스터링〉,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 〈침밀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까지. 대중과 시네필을 매혹시킨 걸작이 열 번째 디아스포라영화제를 수놓는다.

낯설다는 감각은 디아스포라의 감각이기도 하다. 이주와 이동의 경험 속에 부딪는 낯선 공간과 사람들. 두려움과 고통이 앞서지만,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이 뒤따른다. 생을 향한 인간의 에너지가 폭발한다. 〈시네마 피크닉〉에서 그 에너지를 느끼시길. 낯선 사람들이 그려낸 푸르른 미래를 함께 상상하길. 이제 이들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발견할 터이니.

No	작품제목	제작국가	감독
1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 Leningrad Cowboys Go America	핀란드, 스웨덴	아키 카우리스마키
2	바그다드 카페 리마스터링 Bagdad Cafe	독일, 미국	퍼시 애들론
3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Lost in Translation	일본, 미국	소피아 코폴라
4	사운드 오브 뮤직 The Sound of Music	미국	로버트 와이즈
5	침밀밀 Comrades: Almost a Love Story	홍콩	진가신
6	카사블랑카 Casablanca	미국	마이클 커티즈